

2008년 3월 19일

신약 성경 OUTLINE

- 로마서(75) -

227. 변화를 받으라.

말씀: 롬 12:2

요절: 롬 12:2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 집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덧 낡아져 못쓰게 됩니다. 새 집이 어느덧 낡은 집이 되고, 새 차는 얼마가지 않아서 낡은 차가 됩니다. 10년 된 옷을 어디에 곱게 보관했더니 완전히 새 옷이 되었다든지, 몇 년 된 차가 어느 날 일어나보니 새 차가 되었다는 등의 일은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새롭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화적인 사고나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낡고 못쓰는 것이었는데 점점 더 좋아져서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쓸 만하게 되었다, 좋아졌다 등등의 현상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산천은 유구하다는 옛 시인들의 말과 같이 자연은 무궁하지 않습니다. 영겁의 세월 변치 않는 것이 이 우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만물은 모두 옷같이 낡아지고 헤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려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바뀌려니와](시102:26).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는 여전히 계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려니](히 1:11).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영광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한심합니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시103:15). 베드로는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벧전1:24)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롭게 되고 싶지만 하루 늙어갑니다. 병이 들고 약해집니다. 30대가 다르고 40대가 확연히 다릅니다. 바쁘게 사느라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볼 때 '나도 늙어가는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시황제처럼 불로초를 찾는 이가 있었고, 연금술사들처럼 어떤 화학 물질에서 해답을 찾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의학과 약을 개발하는 방법, 인간의 장기를 대체하는 기술, 유전자 조작이나 개발, 지놈(genom)의 지도 완성, 유전자 복제(mutation), 줄기 세포 개발 등등이 연일 들려오는 새로운 시도들입니다. 노화 방지, 노화 역제는 가장 각광받는 신산업입니다. 청춘(젊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들은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의사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모든 문제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성도들은 거듭남을 통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5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딤후3:5).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이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 없어지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 지는도다.](고후4:16b).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는 이미 새롭게 된 성도입니다.

종교나 교육으로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금욕이나 고행으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독서와 다방면에 걸친 경험이 사람을 새롭게 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나 권력이 사람을 새롭게 해 주지 못합니다. 돈으로 새 집, 새 차, 새 옷을 사서 가지면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다고 부러움을 살지 모르지만 돈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장시켜 줄 수 있지만 변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딤후3:5)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새롭게 되는 것은 경제력이나 학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마11:28).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15:4)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누구이든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 38가지에 대해 정리해서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란 글을 썼는데 좀 더 조사해 보면 150가지도 넘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됩니다(엡5:8, 살전5:5). 땅의 소금이 됩니다(마5:13). 주님의 살과 뼈에 속한 지체가 됩니다(엡5:31).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벧전2:8-9).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롬8:17).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고후5:210), 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며(벧전4:2),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딤후2:3-4). 이것들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주어지는 선물들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롬5:5).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선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의 변화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온종일 입에는 욕설과 험담, 분냄과 시기로 가득하던 이가 어느 날부터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말로 변화될 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극장이나

술집, 나이트클럽에 드나들던 이가 교회로 나갈 때 그것을 알아 챌 수 없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늘 불안과 걱정, 쓸데없는 염려로 늘 스트레스를 받던 이가 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자유와 안식을 가질 때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를 알던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변화의 증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할 때 이런 변화를 보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롬12:2). “오직 너희 생각(mind)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 말로 ‘생각’이라고 번역된 말은 *think나 idea가 아니고 mind입니다. mind란 영어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말이어서 굳이 번역이 필요치 않는 단어입니다. *think, idea, heart, mind는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말로는 heart와 mind가 둘 다 마음으로 번역되어 의미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mind는 우리 말로 ‘마음먹었다’(작심하다. 걱정하다)라고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정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하자 은밀히 버리고 마음먹었습니다(마1:19). 우리가 여행하다 어딘가에 머물기로 작정한다든지(행27:39), 어떤 일을 속히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 등이 모두 mind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라, 마음이 흔들린다 등에서 사용된 ‘마음’이 모두 mind입니다.

성경은 생각(mind/마음가짐)을 새롭게(renew)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 몸을 입기 전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23, [너희의 생각(mind)의 영을 새롭게 하라.](엡4:23)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마음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딤후1:7). *the spirit of sound mind.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실상 아무 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들 역시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된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 **높은 마음(high minded)을 품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데 마음을 둡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1: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롬 11:20).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롬12:16). 높은데 마음을 둔 이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높은 것들을 끌어 내리시고 낮추어 버리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며, 때가 되면 높여 주십니다.

▶ **두 마음을 품은 자(double minded)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그 길에 안정이 없습니다(약1:8).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약4:8b). 마음이 복잡한 것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된 자로 드러나리라.](호10:2a)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한 것도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려니와...](왕상18:21a).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그것을 새롭게 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

량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바르게 행하라.](벧전3:8)고 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마음이 갈라졌는데 다른 이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한 마음이 되도록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 눈이 단일하고 내 안에 한 마음이라면 다른 이들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행1:14).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매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니](행2:1).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나누면서 단일(單一)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행2:46). *행4:24,32. 5:12. 초대 교회의 특징은 한 마음이 된 교회란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달리도록 합니다. 비전을 제시해서 공유하도록 합니다. 많은 행사를 열고 자주 소모임을 만들어서 묶어 두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DOUBLE MIND를 단일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됩니다. *고후13:11, 빌1:27,2:2, 벧전3:8 참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십니다. *계17:17 참조.

▶ **육신적인 마음을(carnally minded) 품지 말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생각(마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성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8:5-7,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라.](롬8:5-7).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영적인 생각을 지니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들, 어린아이는 육신적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 아이처럼 말합니다(고전13:11). 어른이 되면 아이의 일들을 버리는 것처럼 영적인 성도가 되면 육신적인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삶의 출발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연약한 마음(feeble mind)을 품은 자를 위로하라.** 믿음이 약한 자들은 마음도 연약합니다. 연약한 마음을 지닌 이들을 위로함으로써 힘을 주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너희를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 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살전5:14). 마음이 약하면 모든 일이 다 귀찮고 싫어집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님은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자이신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강건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강건한 자가 됩니다. 변화를 구하십시오.**

▶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롬15:5). 사람들은 부부 간에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도 천차만별입니다. 쌍둥이도 같은 마음을 지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롬15:5). *grant you to be likeminded. 하나님은 성

도들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고 주를 따르려 한다면 주님께서 같은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계17:17a).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성도들의 생김새는 다 달라도 모두 똑 같은 마음(생각)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 제목입니다(요17:11,21,22).

▶ **맑은 정신(sober minded)을 가지라.**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여](딤후2:6). 맑은 정신이란 술취하지 않는 정신, 뭇가에 오염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를 강력하게 노략질합니다. 학교 교육은 아이들의 정신 세계를 반성정적으로 구축합니다. 신문, T.V와 같은 각종 언론 매체는 성도들의 정신 세계를 지극히 육신적으로 만듭니다. 과학, 철학과 같은 학문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노략질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정은 모든 것의 기준이요, 표준이다”란 생각이 바로 맑은 정신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청년의 때에 이런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빌2:5). 이 마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을 남보다 낮추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며(롬8:9),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2:16).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을 모든 것보다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 **땅에 애착을 두던 마음을 하늘에 애착을 두는 것이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활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이나 보상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도성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은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애정을 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악해지고 나빠집니다. 모든 것은 새 것에서 낡은 것으로, 좋은 것이 나쁜 쪽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써 영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낡은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 없듯이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죄를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 불의를 깨끗하게 합니다(요일1:7,9; 엡1:7). 말씀의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주님께 자신을 돌이킴으로써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1:14,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삼상11:14). 당시 길갈은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데

제도의 개혁이나 교육, 법률의 정비, 부정부패 척결과 같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께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환경의 변화를 먼저 생각합니다. 외적인 변화를 먼저 추구합니다. 하지만 참된 변화는 자신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새로움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 역시 옛 행실과 습관이 그대로 나를 사로 잡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날 같게 하옵소서.](애5:21).

둘째,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옛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진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계21:5). 성령은 지면을 새롭게 하시며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매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시104:30). 장차 이 땅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네 입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103:5).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가 늙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늙습니다. 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고후4:16b).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청춘이 되며, 주의 오심을 갈망하게 됩니다.

셋째, 기도하십시오. 새롭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51:10).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사40:31). 늘 기도하는 성도보다 더 힘있게, 짧게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어떤 음식이나 운동보다 더 효과적인 피로 회복제요, 어떤 약보다 더 큰 힘을 줍니다.

넷째, 변화를 받으라. 주의 영을 받으면 누구나 변화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또 네게 주의 영께서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라.](삼상10:6)고 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가 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니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욥14:14)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죄인들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욥55:19). 모압을 보십시오. [모압은 어린 시절부터 편안히 지냈고 자기의 술 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았으며 사람들이 모압을 비우려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도 아니하였고 모압이 포로가 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안에 그 맛이 남아 있고 그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렘48:11). 그들은 전혀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변화를 구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mind)가 변화되지만 주님이 오실 그 날에는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고전15:51-52, 빌3:21.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개요(227) 신약개론(로마서), 말씀 침례교회 /주일 오후